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국내주식 투자 확대로 크게 늘었다.

- 국내주식 수익률 '25년 83.6%, '26년 85.3%로 KOSPI 수익률 상회
- 전술 최대비중 운용, '98년 퇴직공제제도 발족 후 최대 수익 달성
- 유연한 주식비중 조절을 위해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연구용역도 추진 중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금을 운용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가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발맞춰 국내주식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98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근로자공제회 '25년말 기준 운용자산 규모는 5조 4,631억원, 운용 수익률은 5.91%, 운용수익은 3,080억원이다.

이중 국내주식은 평가액 3,257억원(비중 6.0%) 운용수익률 83.64%, 운용 수익 1,339억원을 거두어 기준수익률(KOSPI) 대비 +8.01%p 앞선 성적을 기록하며 전체 수익의 40% 이상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역시 5월 6일 기준 국내주식 평가액은 5,622억원(비중 9.9%), 수익률은 85.33%, 운용수익 2,782억원으로 역시 KOSPI 대비 +10.10%p 상회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5.7월 부임한 자산운용본부장이 주식비중 확대를 표명한 이후 '24년 말 2.5%(평가액 1,331억원) 였던 국내주식 규모는 1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는 자산운용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신익철 자산운용본부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건설노동자들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직무에 임하고 있다”라면서, “공제부금 일액 인상만큼이나, 적립된 공제부금의 수익률도 중요하다”라는 운용 철학을 밝혔다.

공제회는 앞으로도 수익률 제고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산운용 정책 고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퇴직공제 제도에 맞는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여, 정해진 위험자산 범위에서 시장 국면에 맞는 주식비중 확대 등 유연한 조절이 가능토록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달 취임 이후 자산운용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공제회 장건 이사장은 “건설노동자들의 땀 흘린 가치에 걸맞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관의 설립목적”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주권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효능이 건설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	책임자	부 장	박한솔 (02-519-2080)
		담당자	과 장	임청록 (02-519-2081)

